

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

- 그사람을 알아가는 것.
- 대화를 나눌 때조차 조심해야 한다.
- 표정의 변화를 참고하며 단어 선택에 공을 들여야 한다.
- 첫 번째, 이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와 닿을까?
- 두 번째, 제아무리 뼈가 되는 의견도 상대에 따라서 살이 될 수 있다.
- 그러니 이런 표현은 완곡적으로 쓰는 게 좋지 않나?
- 세 번째, 막역한 사이라도 장난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사람인가?
- 네 번째, 장난도 지나치면 모두에게 살레될 수 있다.
- 이외에도 조심은 다다익선이다.
- 5년을 알든 10년을 알든 한 번 어긋나면 '함께한 정' 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말이다.

관계에 있어 초심자의 자세로 돌아가기 위해선
서툴지만 열의 가득한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.

이평의 <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> 중에서



이평
● 작가 ● 저서: <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>, <우린 누군가의 봉이었으니까> 등

대림 마루

모든 비즈니스 상업용, 일반 주택, 신축건물 등등
최고급 정품 독점 디자인 제품
최저 가격 보장과 완벽 시공



특별세일

최고급 100% 방수 SPC

(제품을 꼭 확인하세요)

모든제품은 품질보증서와 함께
Lifetime warranty를 드립니다.

무료견적 전화: **714.833.9944**

12770 Florence Ave, Santa Fe Springs, CA 90670

신선하고 맛있는 한국직송 활어회 드시러 KUNI횃집으로 오세요!!



(714)752-6658

www.kunisashimi.com

7550 Orangethorpe Ave. E100,
Buena Park, CA 90621



KUNI

SASHIMI HOUSE

OPENING HOURS

Mon: Closed

Tue-Sun: 3PM-12AM